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工業組合令에 對하야

一

最近朝鮮의 資源開發과 함께 各種工業生產額은 急激한 增加를 示現하야 昭和六年에는 二億五千萬圓에 不過하든것이 昭和十年度에는 一億六億條圓으로 增加하엿고 다시同十一年에는 三割四分의 增加를 示하야 八億條圓이라는 巨額에 達하게되엿다 朝鮮의工業은 大資本의 進出로 漸次 大規模의 工業의勃興이 急激하게 勃興되고잇스나 아직 一般으로는 그規模上 家內工業的色彩가 濃厚한 中小工業이 重要한 地位를 占하야輸出及 國內商品에잇서 中小工業의所產이 大工業의 그것을 멀리 凌駕하는 現狀이다。도리켜 中小工業의 實情을 詳察하건대 資力과 信用이 薄弱한데 더하야 技術上 또는 經營上缺陷이 不少할뿐만안이라 多數의 同業者가 亂立하야 相互間에 何等聯絡統制를 缺하야 無謀한 競爭을 일삼기때문에 大資本의壓迫以外에 業者自體間의 不當한 對立으로 二重三重의 損害를 蒙하는 窮境에 處하여잇는 것이 事實이다。

二

此等諸缺陷을 排除하고 自他共히 共存共榮의 發展을 期하려면 同業者로하여금 組合을 組織케하야 集團의 힘을 基礎로 各種經濟的施設을 共同히 하는同時에 業界의 發展과 統制를 合理化함이 가장 妥當한 方針이라는것은 贅言을 不要하는바이다。總督府當局에서도 일즉부터 朝鮮만의 中小工業이 아니라 內外地의 產業統制上 그必要를 認定하고 朝鮮에도 同法令을 實施하려고 計劃하엿스나 支那事變勃發로。그發布가 遷延되여 今日에 及한것인데 時局이 漸次長期抗戰體制로 移行되매따라 物資需給調整、物價統制 生產力擴充等 時局關係上 그實施가 一段緊要性을 加하게되여 來六月까지에는 公布實施하려고最後的 審議에 着手하엿다한다。朝鮮에 實施될同組合法은 아직 그案文이 發表된것이업스므로 詳細한 趣旨는 日本內地의 그것에 準하리라하나 傳하는바에 依하면 特히 朝鮮의 特殊事情을 考慮하야 事業組合的性質에 重點을 두어 工業의 改良發展과 製品의 改良을 圖하는點이 特色일 것이라 한다。

三

日本內地에는 이미大正十四年에 工業組合法의 基準法인 重要輸出品工業組合法을 制定하야 처음에는 其適用範圍를 重要輸出工業에 限定하엿다가 其後昭和六年의 改正에依하야 其適用範圍를 內地用品工業에까지 擴張하고 또 法律의名稱도 工業組合法이라고 改正하엿고 其後 다시 昭和八年 同十二年에 二次 其一部를 改正하야 今日에 至한것이다。現在 日本內地에서 實施되고 잇는 工業組合은 利害關係가 共通되는 同種의工業者의 協同自助團體로 組合員의 產業上 經濟的防成組織인 點에 잇서 產業組合인同時에 組合은 組合員의 事業經營에 干涉하야 業界의 弊害를矯正하고 其統制를 圖하는 意味에서 公共團體的色彩를 帶한 重要物產 同業組合이라고도 할수잇다。即 前者의事業으로는 經濟的 共同施設을行하야 製造、購入、販賣、金融等 經濟的事業을 共同으로하고 後者의 事業으로는 營業上 弊害를 矯正하기爲하야 營業上制限等을加하야 檢査、取締、製品의規格統一、粗製品 不當競爭防止를 期하고잇다。

四

工業組合法이 中小工業의 發展에 必要不可缺한 法令이라는것은 現在日本內地에서 實施하고잇는 法令自體의 性質과 [illegible] 內容으로보면 [illegible] 잇거니와 朝鮮工業가 現代的 [illegible] 大資本의 [illegible] 小工業者自體는 [illegible] 不當한 競爭으로 [illegible] 特히 長期戰體制로 [illegible] 다。

津浦線敵司令部와 粤漢、廣九兩線猛爆

海軍荒鷲의爆擊狀況

【上海六日發同盟】六日午前十一時 艦隊報道部發表＝昨五日의 海軍航空隊는 津浦線方面及廣東方面에서 活潑한 活動을하엿다 津浦線方面 勝見大尉가 指揮한 宿縣攻擊部隊及池上中尉가 引率한 固鎭攻擊部隊 田兵曹長引率한 蒙縣攻擊部隊는 無難히 目的地에 到達하야 同部落에 依據한 敵集團部隊及集積軍需品을 目標하고 各地에 모두 大小數十彈을 命中케하야 宿縣蒙城各城內에 火災를일으키어 盛히 炎上하며 集團部隊에 多大한 損害를 與하엿다

固鎭에서는 敵軍司令部를 爆破한 外數個所에 火災를 發生케하야 集團部隊 集積軍需品에 多大한 損害를 주엇다 廣東方面 粤漢鐵道를 攻擊한 部隊는 連江口附近에서 軍用貨車驛倉庫鐵道線路를 爆擊하야 이에 多大한 損害를 與하엿다

廣九鐵道를 攻擊한 部隊는 廣東市東方에서 驛倉庫及線路數個所를爆破하엿다

其他一部航空部隊는 海州附近에잇는 軍用貨車群을 爆擊、이에 多大한 損害를與하엿다

또 陸軍作戰에 協力하야 全線의 敵陣地를 爆擊、多大한 損害를 與하엿다

徐州를中心으로 敵軍雲霞와가티集結

陸軍荒鷲猛然空襲

【上海六日發同盟】蔣介石은津浦隴海兩線의 要衝徐州를 中心으로 徐州方面一帶의 軍事的意義를 深히重大視하고 이方面에서 대번에戰勢를挽回하려하는模樣으로 麾下精銳中央軍을 續續增派하야 津浦隴海線沿線一帶에 集結하고잇다 그리고 其部下軍隊의 士氣를 鼓舞하고 아울러 列國의對支援助를 促進하려하는 意圖에서 台兒莊、韓莊方面의 戰勝을 巧妙히 逆用하야 內外에 白髮三千丈式 宣傳에 非常히 努力하고 今日에도 依然히 內外의 耳目을 聳動하고잇는此際 [illegible] 京漢線漢口[illegible] 信陽을 [illegible] 津浦線[illegible] 同方面今後의 推移如何는 軍事的으로나 政治的으로 今次事變에 一大轉機를 齎來할것으로 注目된다

陸軍航空部隊 各地爆擊

【○○六日發同盟】陸軍飛行部隊는 六日 前日에 繼續하야 左記各地를 爆擊하엿다

一、○○基地를 出發한 部隊는 淮陰、海州方面의 敵을爆擊하야 多大한効果를 收하엿다

一、○○基地를 出發한 ○○機는 京漢線郾城及津浦線宿縣을 爆擊 敵後方兵站의 輸送及其行動의 阻害에 成功하엿다

一、그리고 一部部隊는 拓皐占領部隊와 協力하야 後續部隊로되여 前進하는 敵大部隊를 爆擊하고 다시 六安附近의 軍事施設에 多大한損害를與하엿다

一、그리고 杭州方面에서 ○○飛行隊는 浙贛線諸驛及寧波方面의 [illegible] 爆擊을敢行하엿다

七時出勤三時退廳 次官會議서協議

【東京電話同盟】健康을爲하야서 또 經濟的節約을爲하여서도「해잇는동안에일하자」는運動은前부터各方面에 이러나고잇는바 昨五日 定例次官會議에서 石渡大藏次官으로부터 提唱되여 出席한 各次官도 이에贊成 早期에도 實行하자고하야 即時企畫院에서硏究키로 되엿다 이運動은 世界大戰當時 諸外國에서實行 好成績을 擧하엿스며 이에依하야標準時間을 一時間 올려 八時出勤을 [illegible]

拓皐를攻略코 敗敵을西方으로急追

【上海六日發同盟】上海軍六日午後二時發表 拓皐를 占領한 中野、古賀、原田各部隊는 百度를넘는 炎熱을冒하고 破壞된惡路와 執拗한抵抗을 排除하면서 三日午後拓皐를 攻略하고 다시敗敵을 西方廬州（合肥）로向하야急追하는中이다

本社參觀（六日）

◀平南中和郡海鴨公立尋常小學校 生徒六七名 引率者 玄賛化氏

◀京城西大門公立尋常小學校 生徒二八〇 引率者 李一寧氏

◀延白郡銀川公立尋常小學校 生徒六〇名 引率者 權伍永氏

蘇聯軍不法侵境에 朝鮮軍强硬抗議

關東軍朝鮮軍態度支持

【新京六日發同盟】最近에頻發하는蘇東赤軍의 國境侵犯及 同事件에關聯한 蘇聯의 逆宣傳放送에對하야 五日朝鮮軍은 蘇聯軍의不法行爲라는旨를 痛烈히 反駁하고 强硬한態度를 表明하엿다 이에對하야 關東軍은 朝鮮軍의態度에 全幅的贊意를 表明함으로써 見解의披瀝을 避하고 無言의 威嚇을示唆하고잇다 그리고 關係方面에서는 蘇聯極東軍의 여러가지不法不信行爲는只今새삼스러히 强調할것은 업고또如斯한不法行爲의 反復이豫期치못한事態의 發生을 誘致할境遇의結果에對한責任은 一切蘇聯政府에 歸할것이라고한다

國府英態度에不滿

【上海六日發同盟】日英海關協定成立은 漢口의 國民政府에 重大한衝動을與하야 지금 새삼스러히 狼狽의빛을 掩蔽치못하고잇는바 昨日의 國民黨機關紙武漢日報及 共產黨機關紙 新華日報는 該問題에批評을 加하엿는데 武漢日報는 英國은 今次의 協定에依하야 實際上에잇서 侵略者를 援助한것이다 英國의態度에 不滿하다라고 述하엿고 또新華日報는 英人이 在華投資를 强固히하려고해서日本이가진英米의 對支貿易壟斷의 奸策을看破하엿다 中國政府는 이協定이 非法한것이며 無効한것임을宣言할것이라하야 모두 英國의態度에 不滿의意를 表明하엿다

高橋○○隊 溝上集을爆擊

【○○六日發同盟】我高橋○○隊는 敵의重要陣地를 粉碎하려고 六日午前十時雨雲低迷하는○○基地를 出發하야 郯城西南方의 溝上集一帶에 布陣한頑强한 銃砲陣地에 多大한損害를 與하고同十二時全機無事히 歸還하엿다

數千敵을擊破하고 郯城을夜襲攻略

谷家峪附近의殘敵掃蕩

【北京六日發同盟】我○○部隊는 四日數千의 殘敵이頑强히 抵抗하고잇든 郯城附近의 ○○을夜襲、激戰을繼續하야 마츰내 敵에殲滅的打擊을 加하고 五日午前四時同地를攻略 敵을南方으로 潰走케하엿다

【北京六日發同盟】井陘炭坑東方에잇는 獲鹿附近警備의 我○○部隊는 去一日早曉 谷家峪附近에 蠢動中인 殘敵約六百의 部隊를徹底的으로 殲滅한바 敵은死體營長以下六十餘名을 남기고 遁走하엿다 我方의損害는 戰死一名 그리고 이戰鬪에는 獲鹿縣長이 指揮하는 民團約百名이 我軍과 共同作戰을取하야 殊勳을세운바 若干의 負傷者를 내엿다

○○部隊 王塘集을占領

【北京六日發同盟】六日午後六時軍司令部發表 五日我○○部隊는 때마침나리는 雷雨를 冒하고王塘集（棗莊西北方約五里）에 夜襲을決行하야 堅固한村落의 圍壁에據하야 抵抗하는 敵을擊滅하고 午後八時四十分 同地를占領하엿다

天主教師一名 支那兵에게被擊

【北京四日發同盟】山西省忻縣天主教宣教師 어마리・호나펜드라는 차와리안師（白）는 支那人從者와함께 教務上의 連絡及布教를 爲하야 定襄에 赴하는途中 五月二日智村（定襄、忻縣中間）附近 田中으로부터 支那正規兵에依하야 近距離射擊을받어 悲壯한殉教를遂하엿다

佛宣教師射殺은 正當防衛上不可避

【北京六日發同盟】六日午前十一時軍司令部發表＝四月二十九日山東省昌樂（膠濟鐵路上）縣城內天主堂에서 宣教師프레데리크・호레이(佛人)師는 同地住民이 編成한 保安隊員外共產軍에 依하야 射殺된 事件이잇서 同地方面警備部隊는 그眞相調查次로 長少佐를 派遣 取調하고잇든바 本事件은 右宣教師가 該昌樂宣撫班及 이와 協力한 擁匪保安隊의 任務遂行을 妨害하며 또拳銃을 發射하엿기때문에 保安隊는正當防衛上 不得已發砲하야死에 至케한것으로 直接我軍에關係가 업는同時에 그前後의 事情으로 判斷하야 該宣教師는射殺의 運命에 遭遇함도 또한不得已하다고보고잇다

傅作儀軍殲滅 久野村、清本部隊

【厚和六日發同盟】陣地를버리고 敗走하든 傅作儀直系軍約三千을 追擊하야 南下한 我久野村、淸本兩部隊는 三日大紅城（和林南方六里）附近에서 五百의敵과 遭遇하야 敵은紅河對岸에 布陣하고 猛烈히 抵抗하여왓스나 無難히이를擊破 喇嘛營（和林西方十二里）에進出하는 一方托克皐方面으로부터 南進한一部隊는 約四百의

皇后陛下臨御下 愛婦會總會擧行

【東京電話同盟】長期事變下의 銃後의守護 愛國婦人會 第三十七回通常總會는 六日午後 惶恐하옵시게도 皇后陛下의 行啓를 奉仰하와 總裁東伏見宮妃殿下를 爲始하야 高松宮妃 伏見宮博恭王妃、梨本宮妃、久邇宮朝融王妃、李鍝公妃、李鍵公妃 各殿下台臨下에 新綠이 淸爽한 日比谷公園廣場에서 會員七萬人이 參集하야 盛大히 擧行되엿다 午前中은 諸員奉迎裡에 午後二時 再次宮城御出門 略式自動車鹵簿로 同二時十分總裁宮殿下 各宮殿下를 奉迎하야 諸員奉迎裡에 式場에 着御 便殿에入하옵시사 本野會長 水野副會長、杉山陸相、水野鍊太郎氏、本庄傷兵保護院總裁에게 賜謁하옵시엇다 總會는同二時二十二分開會 于先戰勝祈願及 戰病死者 英靈에感謝의 默禱를捧한後 議事에入하야 同二十八分 皇后陛下式場에出御 令旨를 賜하옵신바 總裁宮殿下로부터 奉答上하엿다 皇后陛下께옵서는 諸員奉送裡에 御機嫌御麗하옵시게 宮城으로 還御하옵시엇다

皇后陛下御令旨

【東京電話同盟】愛國婦人會에下賜하옵신 皇后陛下의 令旨는如左하다

令旨

玆에愛國婦人會 第三十七回總會에臨하야 親히 諸員을 對하게됨을 기뻐한다

內外多事하야 實로擧國一致奉公의 至誠을다할 秋이다 這間에處하야 本會가創立의 主旨에遵하야 全員結束하야 銃後의援助에 萬全을 期하고잇다고함은 甚深滿足하는바이다

惟컨대 時局의前途는 아직豫測키難하바 各員益益 堅忍持久의節을堅固히하야 益益婦人報國의大義에 邁進하기를바란다

山岳을 利用하야 敵狀을 偵察하는 皇軍兵士（懷遠）

台兒莊攻略戰에 壯烈한九勇士

戰車隊의赫赫한武勳

【東京電話同盟】陸軍省許可濟＝지난三月下旬의 南部山東省台兒莊附近의戰鬪는 支那事變勃發以來의 大激戰이엇는데 同戰鬪에서壯烈한 戰死를遂한 陸의猛牛戰車部隊中島俊夫少佐（當時大尉）原隊（熊本）橋本六雄軍曹、小島臣輔、山崎義行兩伍長、山村明、小池祺兩上等兵、鈴木貞次、奧原八郎、山本浩三 一等兵의 合計九勇士가 戰死하기까지의 奮戰狀況이 最近直屬上官福田部隊長으로부터 遺族에게알리여 六日午後陸軍省으로부터 同書翰의 全文이 發表되엿다

福田部隊長의 便紙는 約四千三百字에達하는 長文으로 悲壯을極한 台兒莊戰鬪의 反面을말한다

▲中島少佐戰死狀況

（前略）台兒莊은 敵이戰前으로부터 多大한時間과 資材勞力을 費하야 構築한 城壁을가진部隊이다 中島大尉以下는 同地近邊의血祭에 ○○의 友軍에 數十倍되는 大敵을邀敵하고 ○○에서는 側面으로부터 多數의 敵을 壓倒하야 遺憾업시 鐵血部隊의威力을發揮하면서 台兒莊城內에突入하려할時 中島大尉는 北門前에 地雷가잇는것을 發見하고 豪膽한大尉는 빗발치럼쏘다지는 敵彈을冒하고 戰車에서 뛰여나려 山崎伍長과함께 軍刀를 휘두르며 城門에接近하야 地雷誘發의電線을 切斷하엿다 城內의敵은大尉의 大膽한 行動에 啞然하야手榴彈을 쏠고 갈팡질팡하는것이보엿다 大尉는 一擊之下에 城門을 破壞하고 저 雨飛하는敵彈가운데 悠悠히戰車로 돌아오자 敵은 다시大尉에게銃口를 集中하엿다 그들의 彈丸에 걸녀 大尉는 아니엇스나 그만 肝臟에命中된 彈丸으로 三月二十七日午後一時 勇壯한 戰死를 遂하엿다

▲橋本軍曹以下의戰死狀況＝中島大尉의 戰死에 조금앞서敵彈을무릅쓰고 攻防困難한 支那墓地를 通過하야 城壁下十五米에近接한 橋本軍曹의戰車는 依然城壁의 敵彈을바더 機關이 火焰에싸여 燃燒하기始作하엿다 橋本軍曹、山本一等兵以下는 一方消火에 努力하면서 他方城壁에 猛射하야最後까지 奮鬪하엿스나 消火가 如意치못하여 同軍曹以下는戰車를 後方에두고 約十米앞에잇는 크리크에 投身하야 奮鬪할수밧게업섯다 그것을본敵은더욱 猛火를集中하엿다 橋本軍曹는、戰車의 最期를보고 彈雨下에서 退却을 쏘면서 奮戰을 繼續하야 台兒莊城外에서 壯烈한 戰死를 遂하엿다

（中略）橋本軍曹의 危急을본 山村小池兩上等兵、奧原、鈴木兩一等兵의戰車도 달려가 敵에게猛射를퍼부어 勇戰을繼續하엿스나 敵의크리크와彈丸은 鈴木一等兵等의 戰車도 擱坐하야 勇士小島伍長以下『陛下萬歲』를 唱하면서 戰車와함께 壯烈한 最期를마치다

이 戰友의戰死로 友軍은奮鬪를繼續하야 敵에게大打擊을與하엿다 이미台兒莊의他一角에 다다랏든 友軍은다시 其一角을確實히 占領하엿다 自今中島大尉以下勇士를 일흔部隊는 死를決하고 勇敢奮鬪를繼續하야 群集하는敵을 蹴散하고 或은退却하는 大軍中에뛰어드러 이를殲滅或은 他部隊와共同하야 敵陣을粉碎하는等實로壯烈한戰鬪를 報復하엿다 某軍曹는 機關部에 故障이 어러나자 戰車에서 뛰여나려 軍刀를두르며 敵中에뛰여드러 敵兵十二名을 베이고 또某一等兵은 눈을傷하야 目으로 戰車를前進식혀敵을 蹂躪하엿다 我部隊의가는곳은 死屍가 山을이루엇다

伯國新移民法

五日브라질政府公表

【리오・데・자네이로五日椎野同盟通信員發】獨政權以來 三年來의 懸案으로되여잇든 伯國의 新移民法은 五日드디여 伯國政府로부터 公表되엿다

新移民法은 二分制限法을緩和하야 外國移民의大量輸入을 策하고잇는바 日本移民은 現狀에 依하야는 顯著하게그入國을 增加할수잇는可能性이 잇서 排日的移民法이라하여도 조흔程度이다 新移民法中 日本人에 關係잇는最大事項은 左의點이다

一、二分配定規定은 一、八八四年으로부터 一、九三五年까지 五十年間의 入國數로하야 每年變更치안코 萬若全比例數에 剩餘가 生할時는 移民審議會의考慮如何로配定數를 適當히 國의 農業移民數로 함을 得함 即一昨年度 配定總數는約七萬人 이엇는바 入國者實數는 二萬五千人에 達치못하엿다 따라서協定如何로는 日本은二萬程度의 配定을 獲得하기는 不可能하지안타고 觀測되다 그리고 配定增加案은我澤田駐伯大使의 提案에依한것이다

維新政府에서 上海海關을接收

【上海七日發同盟】上海海關監督 李健南氏는 六日午前十一時上海海關으로 크로포드海關長을 訪問 維新政府의 海關接收에 對하야協議를 遂한結果 玆에上海海關은國民政府의 羈絆을 脫하고 維新政府의 一機關으로서 機能을 發하게되엿다

人事・集會

◀工藤義男氏（總督府鐵道局長）新任人事次來社

夕刊後市況 六日

◆各地 期米 後止◆

	中限	先限
大邱	三・三	三・老
釜山	三・先	三・谷
群山	三・〇〇	三・云
木浦	｜	三・元
下關	｜	三・三
名古	｜	三・汽

◆各地 商品 後引◆

	當限	先限
大阪人絹	三〇	西〇〇
福井人絹	三〇	三〇
橫濱生系	交〇〇	交〇〇

單一個年으로 中學全科目卒業

國民中學講義

이世上에는 어떠한職業에 就하드래도 中學校卒業程度의知識이업스면 成功을바랄수는업다 가령軍人이된다거나 會社、銀行、工場 或은商店에드러간다해도 小學校卒業만의 學力으로는 절대他人에게뒤저서 到底히 充分한活動을할수업다 家庭形便으로 上級學校에갈수업서 煩悶하는사람들은 勇躍今日부터라도 日本一의 定評잇는 國民中學講義에드러가 斷然成功의第一步를 드듸기바란다。

學校萬能時代는 어미지냇다 사람은일하면서 배워야眞正한敎育이될수잇다 그리고 現今獨學出身者가 每年學校卒業者를 壓倒하고잇다 오로지 實力時代로되엿다 어떤山間僻地에서라도 中學校以上으로 完備된本講座에 就하야 배우면 일하면서 僅少한費用으로短時日에 完全히 中學卒業의學力을 어들수잇다 그리고 今回의入學者에게는 左와如한大附錄의特典도

今回의入學者에게는特히아름다운記念메달(上의寫眞)을爲始하야金보당 辭典等을따로증정하니 大至急 葉書로內容見本을 請求해서 보기바란다

比類업는大附錄進呈

게다가學費는一月一圓

1 書法教典（中等習字手本楷書）
2 新撰國語讀本
3 新撰漢文讀本
4 最新英習字帳
5 青年立身法
6 書法教典（中等習字手本行・草書）
7 獨習自習法
8 ペン字上達法
9 高等英習字帳
10 獨學受驗法
11 國民英語讀本
12 中學全科中辭典

趣味와實益의獨學雜誌『近代青年』每月進呈

◆葉書로 左記로 申込하면 詳細한見本을 無代로 보내드립니다◆

內容見本進呈

東京市麴町區富士見町三丁目三二番地 國民中等教育會 振替口座東京五八〇五八番

어떠한職業에도『英語』獲得이先決!!

올림픽大會萬國博까지 不過二年 商戰最後의勝者는語學의所有者 그리고 業務의餘暇에容易히 習得할수잇는것이라면안배우는게損이올시다. 世間에 有名한井上十吉先生執筆한레코-드付『井上英語講義錄』(月謝一圓廿錢、三個月進級)으로배우면自宅에서 完全히立身의武器『英語』를體得할수잇습니다

英語講義見本 無代進呈

東京市麴町區富士見町三丁目十九番地 井上通信英語學校 振替東京二〇二八八番

葉書로申込即時見本을進呈함니다 (申込所)

日本ペン習字 肉筆本位 通信教授

文部省選定教科書著者 井上千圓先生責任指導

會費月壹圓 六個月卒業 目下特典有

마츰내 習字時代

流麗한筆跡은 出世를빠르게합니다 여러분이 小學校에서六年間習한 國語讀本의筆者가日本一이라는明朗한習字를親切하게 여러분을 指導합니다

葉書로申込即時無代送呈

日本ペン習字研究會 東京市麴町區富士見町三ノ一 振替東京四一八五三番

中部版

府尹이 町代表二名指名
町代表는 銓衡委員選擧
銓衡委員은 總代를 選定
京城府의 町會統制決定案

경성부에서는 부내 이백사십정회(町會)를 일백십정회로 한데 강화하는동시에 정회규정도일대개혁을 하고저 그동안이에대한 부당국의원안을 각정총대회(總代會)에 제시하야 의견을 조합하고잇는데 이번확정되는 정회구역은 부윤이 이를 결정하야고시(告示)하기로 되엿거니와 그개정규정중 제일중요한 주로정총대를 비롯하야 한정회에 두명식의 대표자(代表者)를 부윤이 직접지명(指名)하야 이두명의 대표자가 새로히될 한정회에 이십명이내의 전형위원(銓衡委員)을 선정한다음 이전형위원이 정회의 결의기관인 평의원(評議員)과 정회의 실행기관인 총대(總代)구장(區長)반장(班長)회계(會計)등 모든 역원을 선정하도록 되엿다고 한다 이전형위원은 임기삼년의 상설기관(常設機關)으로하야 임기이년간의 정총대동역원의 개선까지하기로되엿다고한다

이와가티 정회역원의 선거를 부윤이 지명한 정대표가 전형위원을 선정하야 이전형위원이 전권을 가지게 된것은 현재정회의상태로 그리케될수박게업다고하나 종래 형식이나마 민선(民選)이던것이 관선(官選)의색채가농후하게되는것으로 금후 이통제된정회가 얼마만큼 그기능을 더발휘하게될는지 자못주목되는바이다

仁川府兒童愛護週間
童愛會서는記念貯金

[仁川] 건전명랑한 제이국민을 기르자는 표어아래 인천아동애호주간(兒童愛護週間)은 오일부터실시되여 부내각의원 치과의원이발소에서는 무료봉은 박역의봉사를 하고잇스며 칠일오후 산수정(山手町)공회당에서 유아오십명에 대한건강진단 사회과 주최로 오후 ... 각각 부관사들 수여하는 아동에게는 ... 기념저금을 하야 ... 아동에게 보내기로되엿다한다

開城兩公立小學에
消火栓을新設決定

[開城] 개성부내 공립소학교에 방화(防火)설비가 업다해서 지난번부회당시에도 물론이 분분하든바 이번제이교학부 경제예산에는 이천원을 추가하야 궁정(宮町)및 원정(元町)두공립소학교에 각각일천원의 공비를드려 소화전(消火栓)을 신설키로되엿다한다

水原邑戶別稅査定
不公平타고非難
情實關係로稅額을或上或下

[水原] 수원읍의 호별세는 매년불공평하게 사정(査定)을하야 늘이문제가 되여오다가 작년에는 모씨의 이의신립(異議申立)으로 세액을 납기후에 반감하야 확부한사실이 잇스므로 일반은 아직까지 기억이 남어잇서서 금년도 호별세사정을 주목시하고 잇는데도 불구하고소회의원선거에 자기에게 불리할 유권자는 등급을인하하야 무자격자로 만든폐단이잇서서 모모회의원의 선거공작을 하기위하야 읍세오원을 납입할정도가못되는자라도 자기에게 유의이될만한 사람이면 명년에 선거할 유권자로 등급을 인상하고음하고 무리히등급을 인상하고음...

楊平石綿鑛山設備擴張

[楊平] 양평군설악면 임곡리(楊平郡雪岳面林谷里)에잇는 석면광산(石綿鑛山)은 종래대전(大田)이라는 광주의소유로 잇섯는데 설비가불완전할뿐아니라 별로사업을하지안코잇든관계로 일반이 그곳에 석면광산이잇는지도 잘아지못하엿는데 이번에 그광산을 천야(淺野)세멘트주식회사에서 양수하야가지고 자본금십만원으로 그설비를 대확장하고서 방금 그설비에분망중이라한다

... 부터 공사를시작하야오던바 지난사월오일부터 양평군용문면다문리(楊平郡龍門面多文里)대창토목주식회사작업소 부근에서 임(林)군수、좌좌목(佐佐木)서장 이하일반유지기타내빈백여명열석으로 기공식을성대하거 행하얏다

中央線第六工區
四日起工式擧行

[揚平] 중앙선(中央線)제사、오공구(工區)는 작년팔월부터 기공하야 그동안공사가 매우진행되엿슴에따라 제육공구(揚平郡揚平面으로부터 同郡砥堤面까지)도 대창토목주식회사(大倉土木)...

貧窮은天倫을끈엇다

生後十日된嬰兒를
他人門前에遺棄
안해는죽고家勢는貧窮하야

[仁川] 출생한지 열흘박게 안된유아를 자를 강보에 싸재로 남의 집문전에 버리고 도라섯다 집아문전에 드러다보니 에놀라서 전기와가 ... 도리가 업서서 도엿는집 문전에 버린것이 범으로는 용서가 업섯다 지난三일오후열한시쯤에 부내송림정(松林町)이백오번지 박모(朴某)가 발거케드러오다가문편에서도 어린아이우는 소리가나기에 ... 정의도움을 겸치못하엿다한다

仁川一貧夫의哀話

(昌榮町)파출소에 신고하엿다인천서원은 전기유원식을 붓잡아다가 취조중인데 취조하는 경찰에 어린아이기 때문에 창영정 ... 그처참한답변에는 ...

부내송림정(松林町)류원식(柳元植)(四〇)은 노동을 하여가며 처자를 먹여살리다가 십일전에 그의안해가 아들을나코 산후가 조치못하야 넘년생의 형제를남기고 세상을 떠낫다 우호로두 아들의 양육할길이 막연한데다가 괴명이가튼 어린것을 길을 ... 드러나고보니 부락으로 버리고간것이 경찰에 알게되여 범으로써 다시금 만나도록한 인정비극의 일막이 잇섯다 그자세한 내용을 드르면 려하여도 천륜(天倫)이 아즉가리여도라서지못한 사정이면서도 어쩌못하야 무엇중에 남에게 길러달라는 ...

仁川四個月間漁獲
二十一萬九百圓

[仁川] 지난사월중의 인천해역안일대의 고기잡은수는회(京畿道漁聯)에 도어업조합련합회(京畿道漁業)에서 조사한바로 칠마원천오십사원구십칠전으로 전년동기에비하면 일만오천팔백사십팔원칠십삼전의증가를보엿다 곳하(蒙滿)이천본어한인천으로서도 면목을 구비하야잇다 금년은월이래의 루계를보면 사개월동안에 이십일만 구백이십원으로전에 달한다고한다

今年度計畫으론
養蠶農家百戶創設
京畿道의養蠶獎勵策

누보＝경기도에서는 한평의땅도업는 순소작농이나 자작농의 구별업시 양잠을 장려하야온 종래의 매목적지도방침을 고처 금년도부터는 개생지도농가(更生指導農家)즉 개생계획에 양잠을 집어너흔것으로잇는 소작농에 자작상전(自作桑田)을만들게하야 양잠을하도록 장려하기로되엿다 도내양잠호수는 재작년현재로 오만구천칠백사십구호로 그중자작농가가 四〇、六%자작겸소작농이 三三、五%임에비하야 남은농가를 소화시키는점으로나 현금수입의 증가를도모하는점으로나 양잠을 절실히 필요로하는소작농은 겨우一八、八%에 지나지못하는 사실예비추어 금년도부터는 매년도예산이 용서하는범위안에서 상전구입비의 삼분지일을 보조하고 남어지는 금융조합으로하야 금대부케하야 자작상전을 창설케할계획이다 금년도에는위선 진위、장단、안성、포천 각군에 각일정보식、부천、연천、여주각군에 각일정보식 합계십정보에 보조를주어 보치 양잠농가백호(한호에상전일단보식)를 창설하기로되엿다

新設町土幕民等
六日에又復陳情
京城府선既定方針대로拒絕

부내신설정(新設町)에잇는국유지에 토막(土幕)을 짓고 사는 오백여호 빈민들의 토막을 경성부에서 그기지를 합하진(滅)국에지정하엿든데유일로다시그주민대표자 다섯명이 경성부로차저가서 정합(歎願)공영부장을면회하고다시금 진정을 하엿다 경성부에서는 기정방침대로 할수박게업다고하야 역시 그진정을거절하여버렷다

子息업는貧老
厭世鐵道自殺

[小井里] 지난오일 정오쯤해서 부산으로부터 경성으로향하든 북행급행렬차 『아가쯔기』가 소정리역(小井里)에서 약삼『키로』되는곳을 통과할지음에 어떤노인한명이 몸을던저 자살하얏다한다 그는 천안군공세면미추리(天安郡公世面美竹里)사는 김광록(金光祿)이라는데 그노인은 육십여세되도록 슬하에 자손이업고 자기가 매양 노동을하야서 근근히 살어오던중 어느도 자기절망에 가는도중에 무참이도 자살하엿는데 열차는 현장에서 일분간 정거하엿다한다

남의도야지窃賣
娶妻甘夢中被逮

[仁川] 도야지 세마리를훔치고 금석산(金石山)(二七)은 지난일일에 부내일출정(日出町) 하상운(河相殷)씨 집에서 길르는 도야지 세마리를 절취하여다가 부내화수정(花水町) 중촌조(中村組)에 축공사장에서 도살하야 공사장 인부와 근처사람에게 팔려서그 돈으로 부내도산정(桃山町) 이치근(李致根)의 장녀 선녀(成女)(二〇)를 안해로 삼고 벌혀이 잇다가 며칠전에 부내신정(新町)일번지 하숙옥에 잡복하여 잇다가 체포하얏다 서에서 취조한결과 작년 사월중에도 도야지를 절취하야서 주새에 낭비하고 팔개월 복역을마친 전과일범으로서 ... 여섯가 만흔돈이 약으로 벌금 수인생들 ... 중이라한다

一夜에兩家侵入窃盜犯
捉捕으로에머붓잡앗다

[素砂] 사일오후열시에 소사최선봉상점(崔天奉商店)에 침입하야 여관부근에 오십하고 잡지기를 대하얏다가 지감과 동양장사하문을열고 나가서 다시 소사자동차부(素新自動車部)에가 예보다가 『폐지』로 고리를끌고 침입하야 차장(車掌)가방에서 어원을끄내가지고 금고를 열려고 애를드지히쓰는때에 조수한승정(助手韓春成)씨가 발견하고 달려가 하러나가다가 조수두명을깨워서 상에드리가 ... 사인이 가만히 ... 박게나오는것을 한조수(韓助手)...

富平平野一帶
好雨가知時來

[素砂] 부평평야(富平平野)일대는 벌판에 물이주려 농부들 보리를 쓸고 수리조합(富平水利組合)이 잇는이상 아강물에 대한아우성도 시고대고대 기다리고만잇든 중비는것도 우여도 ... 다 기름진 너른거리로 양동보고 인제는 바람이나는 농부들의 개에서 ... 뽈은비할데업다

傳染病으로黃泉간
獸類一九七七頭
昨年一年間이처럼만히斃死

전시체제아래에잇는 오늘 소말 도야지등 가축류는 군수품(重需品)으로 대단히필요한것인만큼 당국에서는 일반농가로하여금 기르든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동시에 수류검역(獸類檢疫)을 일층엄중히하야 전염병을 빨리발견하야 그철저한예방을하며 수의사규측(獸醫師規則)을제정실시하는등 수류보호증식에만전을 도모하고잇다 경기도에서는 작년일년동안 전염병기타병으로 죽은수류 즉 폐수(斃獸)가 일천구백칠십칠두마리에 달하는데 군(郡)별로지에 검안전...

京畿道檢案督勵

임원(檢案事任員)의 배치가다되여잇지못한관계로 겨우 그중사십팔『퍼센트』즉 약절반이 엄밀한검안을 거친엇슴뿐으로 수여예방상 소홀히할수업는 문제라하야 도위생과에서는 오월중에 하각서에 검안호처히 한도록 독려하는바이엿스며 작년조부터 실시를보게된 수의사규측을 잘준용하야 수류를 악질로부터 보호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바이엿다

開城有隣館開館式
百餘來賓參席·五日擧行

[開城] 소위공영이라는미명을 부르짓는 사회유지는 개성사회에도 만혓스나 명랑한부회생활에서 버림을 바든빈민계급에게 구제의손을 뻐처주는일은드물엇섯다 그러데 개성에잇는 유지한정호(韓貞鎬) 임병식(林炳植) 오기환(吳箕煥) 우상룡(禹相龍) 마응규(馬應圭)박하영(朴夏榮) 이문준(李文準) 양주안(梁柱安)등 팔명등지는 남산정(南山町)에 고 서로 그게의수하야 유린관(有隣館)이라는 무산계급조사업기관을 부내남산정(南山町)한모퉁이에 건설하야 지난오일오후두시에 각계유지 백여명의 참석으로 성대하거행하엿다 개회벽두 송부윤(宋府尹)을 비롯하야 한정호씨의 간단한 개회사가잇슨후 조선(朝鮮)공지래(孔志泰)김영우(金寧禹)이안석(李漢奭)박성규(朴聖圭)등제씨로부터 감격에 넘치는 축사가잇섯는데 동관의 경영사업은 다음과갓다

▲社會敎化 各種講演及講習會等 ▲兒童保護 就學兒童敎育 訪問指導事業 ▲醫療事業 無料乳兒健康相談 姙産婦健康相談 育兒榮養相談 夜間實費診療 無料健康相談 ▲經濟保護 郵貯獎勵

十三歲된少年이
紳士懷中을둘치
五日夕和信屋上에서

당년십삼세의 일공시반쯤되여종로화신(和信)백화점 옥상에서는 경(慶)에서 한몸사는김운식(金雲式)씨의호주머니에서 현금팔원이들어잇는 지갑을훔처내는 소년을김씨가발견하고 종로경찰서에 넘겻는데 그아이는 리만복(李萬福)(一三)(假名)이라는 걸인소년으로판명되엿다 사일밤에에올러 홍시에 업드려가라는한마디말을 남기고 나온지삼개월가량의 남아를버리고 종적을감추어버리엿다는데 어중민씨는 나이사십에 남녀간자식이업음을 한탄하던차에 『업』어드리와대단히기뻐하야소중히양육하기로되엿다 어린아이를 바꿔정월초하루날엿다고씨유의잇섯다한다

未成年者에게
술팔고서逢變

[楊州] 의정부(議政府)리에서음식점영업을하는 장윤희(張潤熙)(三二)은 수일전에 작부 김해월(金海月)(二二)을시켜서 동리 송명선(宋明善)(一六)송영목(宋永穆)(一五)지곡리(新谷里)최광균(崔光均)(一六)세소년에게 우슐파 술을팔다가 경찰서에발각되여 영업자는물론 부형까지 엄중한계벌을 방면하얏다 미성년자의 술파는행위에 여러가지로 벌규가잇기에 대한계엄하라한다

京城府家畜市場
賣買價格은增加

경성부영가축시장(家畜市場)의 사월중 거래상태를 보면 소의 (牛)의 입장두수(入場頭數)가사천오십사두인데 매매된 두수는 이천구백칠십사두로 매매가격은오십오만칠천사백팔십육원이다 소의 매매는 그중만히서 전체의 칠할이요 칠할이분가량된다 또 말(馬)의 입장두수는 두필인데 매매는 ... 매가격이 일천원이며 도야지(豚)의 입장두수는 이백구십이두인데 매매두수는 이백구십이두인데 사백십사원 가격이 일만구백사원이다 이것을 작년사월 에비하면 입장두수는 감소되엿고 매매두수가 천사백사십사두나 감소되엿고 매매가격이 이만구천원이나 증가되엿다한다

楊州에도棄兒

[楊州] 양주군양주면누원리(楊州郡楊州面樓院里) 이중민(李重敏)(三〇)씨문앞에 어떤여자가 지난일밤...

楊州淸潔施行日字

[楊州] 양주면내(楊州面)춘기청결(春季淸潔)시행일자는 다음과 가티정하얏다한다 ▲八日(八日花雨里長興里 ▲九日新谷里里 ... ▲十一日 ... ▲十二日 ... ▲十四日(議政府里)

소뮈잇는이

... 매가격이 ... 대개 ... 원으로 작년보다 ... 시세이며 ... 가 올르리라한다

社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設置하엿사오니照諒하시압

高原支局
位置 咸南高原邑內
變更 昭和十三年四月二十六日
支局長 裴 陽 者

朝鮮日報社 白

謹告

右依願解任 支局長 金 ○ 洙

朝鮮日報社 白

今般本支局管轄分局을左記와如히設置하엿사오니照諒하시압

江西分局
位置 咸州郡西面西上里
設置 昭和十三年四月三十日
分局長 金 信 ○

連浦分局
位置 咸南咸州郡連浦面新興里
設置 昭和十三年四月三十日
分局長 金 炳 烈

朝鮮日報社咸興支局 白

今般本支局管轄分局을左記와如히設置하엿사오니照諒하시압

鳳東分局
位置 全北完州郡鳳東面洛平里
設置 昭和十三年五月五日
分局長 鄭 鳳 亮

朝鮮日報社全州支局 白

今般本支局管轄分局을左記와如히設置하엿사오니照諒하시압

蟾居分局
位置 全南光陽郡津上面蟾居里
設置 昭和十三年五月一日
分局長 許 ○ 永

朝鮮日報社光陽支局 白

今般本支局管轄分局을左記와如히設置하엿사오니照諒하시압

富平分局
位置 京仁線富平驛前
設置 昭和十三年四月十五日
分局長 張 昌 ○

朝鮮日報社富川支局 白

長連支局
記者 崔 允 ○
記者 李 正 玄
右新任 昭和十三年五月五日附

記者 劉 世 仁
右解任 昭和十三年五月五日附

延安支局
記者 趙 弘 ○
右新任 昭和十三年五月五日附

記者 趙 ○ 星
記者 崔 ○ ○
右解任 昭和十三年五月五日附

唐津支局
記者 鄭 ○ 伍
右新任 昭和十三年五月五日附

大和支局
總務 崔 ○ ○
記者 李 昌 中
記者 崔 ○ ○
右新任 昭和十三年五月五日附

外金剛支局
總務兼記者 金 定 河
右新任 昭和十三年五月五日附

原州支局
記者 辛 乙 ○
右新任 昭和十三年五月五日附

懸賞募集★ 小說·實話·通信·寫眞

大陸

ナチ ドイツから何を學ぶか・（諸家）
動く政治 葛西清重
初夏の鯛釣り 佐藤垢石
「四季の歌」 尾崎秀實

長期戰下の國民經濟…堀切善兵衛
革新政策の方向…松井春生
大陸政策と勝海舟 德富猪一郎
大陸に寄せる言葉 荒木貞夫
★今月の展望 (政治經濟)永田清 (社會文化)本田喜代治 (東亞)山上正義 (歐米)木下半治
八十億貯蓄運動 木村禧八郎
北支に進出する資本家群 小汀利得

巴里戀日記 藤田嗣治
舞踊會の手帖 (映畫解說)松永穰
街頭にカメラを向ける・大宅壯一
大楠公とフオッシユ元帥・柳川平助
歌劇の國際劇場・丹羽文雄
當世シヤレ談義 石黑敬七
初夏・變態心理・犯罪…高田義一郎
印度の不安…戸野原史郎
リーグ戰の新人 小出秀世
新進力士論 尾崎士郎
統制經濟はどこまで進むか…木村增太郎
薄明の戰車隊長と語る…木村毅
ありし日のシヤリヤピン…中根宏
流行歌はどう變つたか・瀨戸欣一
事變と轉向者・山瀨晉吉
代用品時代 白崎享一

怒濤的小說陣
自由花 (大陸小說)杉山平助
王宮 (創作)横光利一
上海の眞夜中 (長篇小說)茅盾
ヤマトノフ二代記 (長篇小說)木蘭貝二
大陸 (怪奇小說)木々高太郎
一觸卽發 (戰爭小說)ルネ・ジユーグ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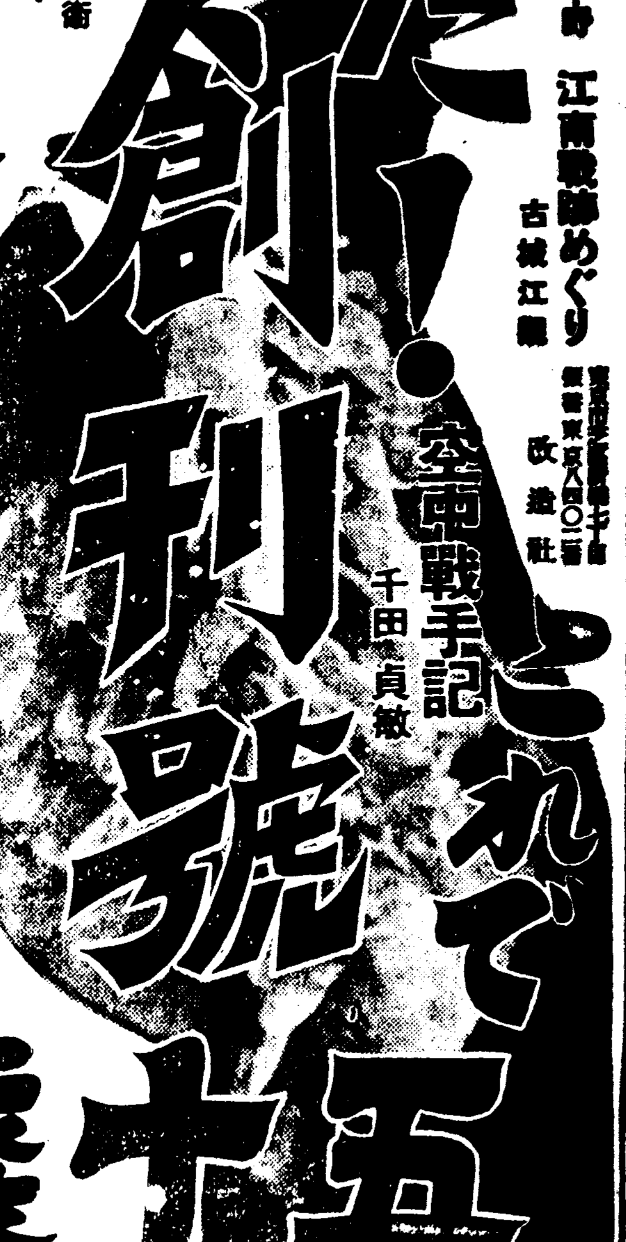
出た！ 創刊號 これで十五錢

特輯 新黨は生れるか 花見達二
新設の諸官廳 栃河信藏
私の北京非籠城記…村上知行
華北經濟建設への途…殷同

宇垣一成の心境 (筆者は最近大將と膝に交へて時事を論じ此巍然たる力の巨人の胸奧を叩き肚の底を覗く)…山本實彥

世界を動かす今日の巨人 特種グラビア十六頁
ムツソリーニ…伊藤正德
ルーズベルト…賀川豐彥
ヒツトラー…小島威彥
ダラヂエ…重德泗水
スターリン…相馬一郎
蔣介石…吉岡文六
チエンバレン…古垣鐵郎
近衛文麿…宮崎龍介
●問題の東京オリムピック…尾武青魚 序曲(詩) 北原白秋
滿洲の馬(詩) 藤原定

趣味の頁 漫畫・漫文・短歌・俳句
隨筆 岡本一平・高濱虛子 新居格・松內則三 山本安英・竹內芳衛
ユーモア・コント集・中野 實・中村
江南戰跡めぐり 古城江觀
空中戰手記 千田貞敏



ざっくばらん座談會 出席者 大佛次郎 北村小松 澤村貞子 德川夢聲 林芙美子 サトウ・ハチロー 司會者 新居格

改造社 東京・芝

演藝娛樂

映画팬의手帖

"론차니"와"야닝쓰"의 義俠心이부러워

金晟鎭

조선의 도규계(刀圭界)에 잇서서 소장학자로 명성을 날리고잇는 김성진박사(金晟鎭博士)가 조선에 잇서서는 어느누구에게도지지안니할 영화에대한 노프신견과 이십삼년동안 게으름이업시 영화를 조하하고 사랑해왓다는사실은 아는이는알는지모르나 드트매실로 놀라운일이아닐수업다 거리에는 오월의 신록을재촉하는 이슬비나리는오후 서린정(瑞麟町)에잇는 김박사의병원을 방문하엿다 작년개업한이후로 박사의덕망과 인술을 차자오는환자가 끈일사이업는지라 어더지박사의얼굴에는 다소 피로한듯한기색이 보이기도한다 그런중에도흔연히 기자를 마저주신다

○……○

記『대단히영화를 조와하신다기에 재미잇는말슴을들려줍시사하고 차저왓슴니다』

金『글세요 영화는 대단조와합니다 작년개업한이후로 다소바빠지긴햇지만 그래도 한주일에 한번은 구경가는 폭이지요』

記『언제브터구경단녓슴니까?』

金『내가 보통학교는 사범부속에단이면서 당숙집에 유숙햇슴니다 아마 영화구경단이기는 열한살때브터가되는데 그때는 우미관으로 단겻지요 차차 구경에 재미를 부치게되니깐 학교에서 나오는길로호떡가를집사서 호주머니에 너허가지고 갓슴니다 역시 명금(名金)이나 서부활극가튼것이 그때영화로는 인상에 남어잇어요 그후로는 조선극장이니 단성사도생기고햇는데 말하자면 그때는 영화구경보다도 변사를 따러단긴셈이지요 그중에도 서상호(徐相鎬)가 제일 나엇서요 그래서변사를 선택해가지고 구경단녓지요』

記『중학시절에 보신영화중에 인상남은건 업습니까 그때 기억에 남은이야기를──』

金『단성사에서 폭풍의고아(孤兒)에나오는『리리안·킷슈』『도로시·킷슈』가 주연한건데 퍽감격햇서요 누구나 그러치만 중학이삼년되면서부터는로맨틱한것을 조와햇지요 그래서『바렌티노』의『椿姬』나『血과砂』가튼걸 감격해보앗슴니다 그때 나하고친한동무로 지금은 세상을떠낫슴니다마는 유인국(柳仁國)군과 늘함끠다니면서 영화에대한 이야기도 만히햇지요 내성격판게인지는 몰라도『에밀·야닝쓰』나『존·바리모어』와 가티 남성적이고 현실잇는게대단히 조와보이고 부러웟슴니다 그래서 감격된작품이면『프로마이드』를사서 모으군햇서요』

○……○

記『이학을전공하시면서 영화를보시는데 다른사람보담 달리 생각되시는게 업스십니까?』

金『영화에서 임종(臨終)하는장면을보셔서요? 내가본 영화에서는 임종하는장면이 하나도 그럴갑슬내게 업서요 물론 이런장면은 처참하니까 그대로 낼수는업다고 하더래도 근사하게는 처리할수는 잇슬텐데요』

말하자면 작품의 어데올주기와 허실이 서로맛잔은것은 마

유에 끼워저요 실물하자가 희면을하여보고 하나가 부족하다는것을 발견햇다는것과가튼 데도가영화에서도 필요할줄 압어요 그래서 영화에나오는 배우의육체에대해서 좀더파하적으로좋하해가지고 부자연스럽잔케하는것이 조흔것가터요 ……그리구 영화에 전화거는 장면에『이야기중』(お話中)이라는걸보면이잇으서요? 이런것도 그냥 따신안흘나고하면서도 어쩐지 불만하게 생각되드군

요 좋며 어런것도 생각이엇도 특할수잇슬것 가태요』

記『그런중에서도 어떤경향의영화를 조와하십니까?』

金『맑스형제가 하는영화가튼건 보아도 도아조흥해해서조와요 따분하문예영화보담 그런편을취하지요『로드·아르는의『どん底』와『르네·은르』의『우리에게 自由를』하는것두 조와요 그리 고옹의영화를조와합니다 未完成交響樂이나『오─케스트라의 少女』도 조와요 최근 내심

정으로 느껴진것은 우수운이야기겟습니다마는 열풍영화토『戰の町』를보고 퍽감격햇서요 밧을저서, 현실적으로 고생하는건 어쩐지 내자신의일가텃서요』

잠시 박사의 얼굴에 한숨의 수웃(微笑)이 스친다 뒤이어오는 환자도 잇고 또 왕진하러 가실것도잇기에비장해든 프로마이드첩에서 각금 옛날을 회상시킨다는 명화 명우의 메장을 골너가지고 나왓다

(上右)〃론차니〃(上左)〃에밀야닝쓰〃빠리에테扮)(中)〃빠렌티노〃(血과砂의一場面)(下)〃촤플린〃(黃金狂時代中一場面)

七日(土曜)

◇正午(東) 時報

(東)土曜코─너─

◇午後一時一五分 衛生講演『皮膚病이야기』 醫專病院 金星煥

◇同六時 名作朗讀『쿠오레』中에서 一、어머니의사랑 二、校長先生 朴義燮

◇同六時二五分 趣味講演『米國民謠이야기』 延專敎授 鄭寅燮

◇同七時三〇分 講演『姙産婦保護에對하야』 府民病院産婦人科長 尹丹圭

◇同八時 歌謠曲 伴奏 日本빅터─管絃樂團 李南圭 朴丹馬 尹芙蓉

◇同八時三〇分 玄琴併奏 一、진양조 二、중모리 三、자진모리 申快童 韓淑子

◇同九時 連續野談『日露五十年』 韓成俊 申自老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基礎英語講座(十二)

◇正午(東) 土曜코─너─

◇午後六時(大) 童話

◇同六時二五分(城) 講演

◇同七時三〇分(城) 歌謠

◇同七時四〇分(東) 講演

◇同八時一〇分(東) 맨 돌린

◇同八時三〇分(大) 青年訓練所査閱實況

八日(日曜)

◇正午(東) 時報 俗曲 一、出念佛 二、방아打鈴 三、梁山道 四、興打鈴 五、四節歌 六、도라지打鈴 七、密陽아리랑

◇午後一時 歌劇『結婚行進曲』 朴淇月作 崔淵成 李忠善 池龍九 崔權 出演 崔秉洪

◇同一時四〇分 레코─드音樂

◇同一時四〇分 春季競馬實況 (國語)(平壤)─平壤南競馬場으로부터中繼─

◇同六時 童話『어머니날』 金光鎬

◇同六時二五分 修養講話 權相老

◇同七時三〇分 伽倻琴併唱 一、短歌 竹杖芒鞋 二、唱劇 가、夢中歌 나、제비路程記

◇同七時五五分 杖鼓 國民歌謠(全國中繼) 一、아침 小田進吾作曲 二、愛國花 古關裕而作曲 三、航空決死兵 內田元作曲 齊唱

◇同八時一〇分 音律 伴奏 一、金剛 管絃樂

◇同八時四〇分 童劇『童公園』─方春海作─

◇同九時一五分 演出 白手 洪銀杓 會 一、出師表前後篇 二、歸去來 張玉花

第一放送

◇午前六時四五分 (小島ノ喇叭)

◇午後〇時二〇分(東) 野球

◇同六時(朝中) 唱歌

◇同六時二五分(京城) 講演

◇同九時一五分 新時間劇(平壤)

◇同一〇時一〇分 風習講座 中村健太郎

◇同七時三〇分(東) 日曜講座

◇同七時五五分(城) 講演

◇同八時一〇分(京城) 尺八

◇同八時一五分(城) 音樂

◇同八時三五分(東) 勃興

◇同八時五五分(〇) 浪花節

×××本社獨占×××

國手爭霸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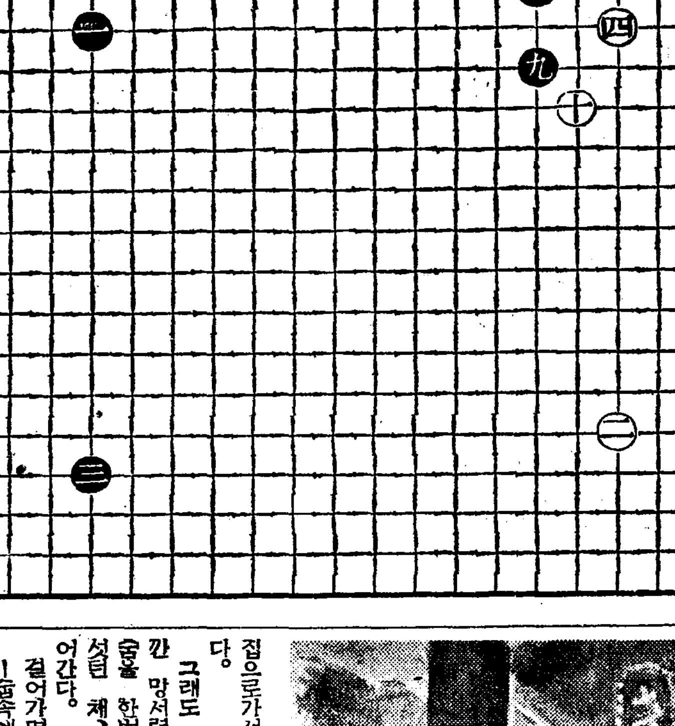
=(1)=

白 丁奎春

黑 權載衡

(四目半込出)

● 一 巳의五
○ 二 丙의十五
● 三 巳의十六
○ 四 丙의五
● 五 戊의四
○ 六 丁의三
● 七 戊의三
○ 八 丁의二
● 九 戊의六
○ 一〇 丁의七



正反傾向의對局

碁法의 趣向을 各人各色이라고 할수잇스나 그를 大別하면 作戶를 조와하는者와作勢를 조와하는 者와의 둘로 난홀수잇는데 今番對局에잇서서 白을가진 丁奎春氏가 作戶를 爲主하는것은 일즉알수잇섯거니와 黑을 가진 權載衡氏의 手法은 처음拜觀함으로 作戶를 조와하는지 作勢를 조와하는지 알수업서 陣法의 機微를 速斷할수업스나 第一手및第二手의 基點布陣으로 보아서는 丁奎春氏가 作戶를 爲主하는것보다도 더一層作勢를 爲主하는高手인것을 알수잇다 그리고 내의觀察이 틀림업슬것가트면 이正反한趣向을 가저고잇는 即作戶를爲主하는 丁氏와 作勢를爲主하는 權氏와의陣法을 拜觀하는 것은 자못 興味잇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黑一 巳의五는 일직말한바와가티 中央으로 進出함에重點한 말하자면 作勢를重視한 打點이오 白二 丙의一五는作戶를重視한 打點이다 그리고 黑三 巳의一六은 中腹基點으로서 毒하어느쪽에 選置한것은 아니지마는 巳의五의友軍과互相呼應함을 가만이企圖한것으로보아서 作勢를 重視하얏슴을 짐작할수잇고 그와反하야 白四丙의五는 黑의 第四線 即巳의線에對한 第三線 即丙의線 그리고 겨울目外基點을 擇한것으로 보아서 作戶에 置重하는것을 斷言할수잇다그리고 初陣布石에잇서서 어와가티 相反한 趣向이 表局하도록 隱顯할것이니 今番의 觀戰은 이趣向의 決戰으로해서 特別한 意味가 잇다고 생각한다

黑五 戊의五는 丁의三에두어 邊地를 占하는것도 조치마는 그리두면 白六이 戊의五로 小斜走하야 中央에 作勢하게되니 黑이邊地作戶를 白에게 讓渡하고中央作勢를 目的한 打點이오白六 丁의三은 저의棋風에맛는 邊地作戶를爲한 打點이다 그리하야 黑七 戊의三 白八丁의二의 서로不避할수업는 關聯을거처서 黑九는 壬의三으로 作戶線에 벌리지안코 戊의七로 飛走하야 中央에로 發展할만 힘이엿스나 여것은 너무 지나친 일이어니라 할수업다 그리고 黑이 積極한計畫이업시 中央으로 만 進出하는 동안 白一〇이 丁의七에두어堅固한白地를 構築하게된것은注意치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러므로 黑九가 壬의三에두지아니하면 丁의六에두어 右邊의白地가 擴大되는것을 阻止하는것이 올타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와가티두면 白丁의五, 黑戊의五 白戊의六이되어야 丁의六의黑一點이 끈어지는데 그의變化는 자못複雜한것이어잇스니 次回에서 詳述하겟다

北鮮選拔軍과對抗할
朝鮮拳鬪豫選大會

時日 五月十四日、十五日午後三時

場所 安國町徽文小學校特設링

申請 五月十二日까지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二六 同聯盟事務所로申込할것

主催 全朝鮮아마拳鬪聯盟 後援 朝鮮日報社

長篇小說

濁流 【190】

蔡萬植 作
鄭玄雄 畫

內香蓮·外夜叉(4)

사람의 왕래가 뵌 공원 압헐 녹만에가서 넉을노코 섯던 초봉이는 얼마만에야 겨우 정신이 들엇다.

정신이 들자 마치던 한숨이 소스라치게 터저 울으면서 이어 기운이 차악 까라진다.

인제는 더 거닐고 무엇하고 할 생념도 안나고 일껀 조마음편하게 집기잿던 조호밤이 그만 쓸데업고 말엇다.

처음 요량에는 조용한데거리까지 바람만 밟어가서, 계봉이가 잇는 ××병원전에 들러 선전이 한바퀴 돌아보고, 그리다가 시간이 되어 파허거던 계봉이를 데리고 가지 오려니 오다가는 아무거나 먹음직한걸로 반찬이라도 사가지고오려니, 이래던것인데 공론시 생각잔흔 마가 부러 홍이 떠러지매 이것이고 저것이고 다아 내키지안코 지옥가터도 할수업는 노릇이요 차라리 어서 집으로가서 드러눕고 십기만하다.

그래도 미망이 업든못해 잠깐 망서렷스나 인해 호ㅡ 한숨을 한번 더 내쉬고는 돌아서던 채, 오던길을 맥 업시 걸어간다.

걸어가면서 생각이다.

ㅡ숲속에 섞겨 선 한그루 조고만한 남구랄까, 풀어덤에 가치자란 한멀기 이름업는 풀어랄까, 명색도 업거니와 아무 시비도업는 내가 아니더냐.

우독 소슬것도 업고 번화하게 피어날며리도 업고 다못 남과 한가지로 남의틈에 섞여 숨러 남을 해하지도 말고 남의 해도 입지말고, 말성업시 바스락소리 업시 살어갈 내가 아니더냐.

내가 언제 우난 행복이며 두려진 호강을 바래더냐. 내가 잘되자고 남을 해햇더냐. 보모며 동기간이며 자식한테며 불량한 마음인들 먹엇더냐.

마음이 모진배도 아니요 선분이 유난스런것도 아니요, 소리업는 남구 이름업는 풀포기 가 아니더냐.

그러건만 그 사나운 풍파며 어 불측한 박해가 어인것이란 말이냐.

이 야변은 무엇을 하자는것이냐 이몸을 구치서까지 내목숨을 자결하자는것이 아니냐.

내가 어쩌니 이러듯 무서운 독보가 되단말이냐. 이것이 회장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노릇을 어찌하잔 말이냐.

이리한것을 일러 운명이라 다면 그도 하릴업다 하러니와 아무리 야속한 운명이기로니 너무도 악착하지 안흐냐.

운명…운명…그래도 이노릇을 어찌하잔 말이냐──」

소리를 부르지저 울고시픈것이 더운 눈물로 두볼을 적시르 흘러내린다. 눈물에 눌리 좌우를 살피니 어둔 동편의폭만 멀은 길이다.

아무러케나 소매를 들어 눈물을 씻스면서 얼마 안남은길을 종내 시름업시 걸어 올라간다.

허미한 가등에 비처보니 팔목시계가 여덟시하고 사십분이나 되엇다. 그러저러한 사실분네겨 밧게서 축그린 셈이다.

꽉 이십분안에 다녀오라던 시간보다 곱절이나 되엇거니 해도 그게 그대지 속이 호련한것도 몰으겟다.

큰길을 다아 올라와서 골목으로 들어설 때다.

무심코 마악 들어서는데 갑자기 어린애 우는소리가 깨무라치듯 울려나왓다.

송희의 울음소린것은 갈데업고 깜짝놀래면서 반사적으로홈첫 멈처서던것도 일순간 꼬무라질뜻 쪼차들어간다.

아이가 제풀로 벌써 잠어깰 시간도 아니요 또 깨다고 하더래도 울면 칭얼거리고 울엇지 저러케 사뭇기절해 울 여치도 업다. 분명코 이놈 장가놈이 내게다가 못한 앙심풀이를 어린애한테다가 하는구나.

……

급한 중에도 이런생각이 퍼뜩퍼뜩 그러나 몸은 뭉대루 바쁘다. 골목이래야 바루 몃걸음 안되는 상거요 결로 난 안시방의 서창이 마주 보여 헌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어떠케도 다급한지 마음가러서는 달바 창문을 떠밧고 뛰어들어갈것 가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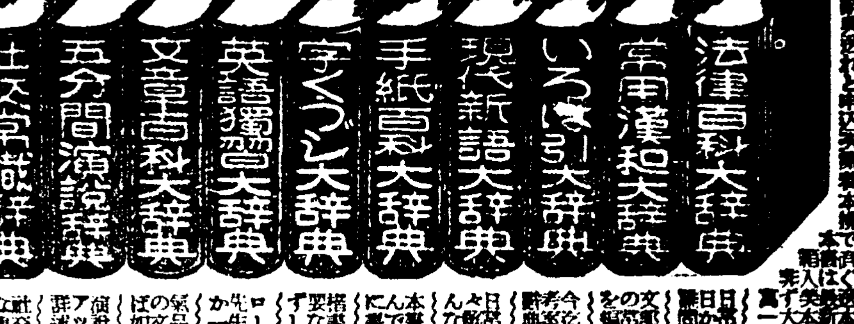
지친 대문을 안 중문을 마당을 마루를 어떠케 밟차고 넘어뛰고 해들어와는지 몰온다.

안시방 위미다지를 벼락치듯 열어재치는 순간 아니나 다를까 두눈이 벌컥 뒤지펴진다.

질척이야 못되더래 아니지만 너무도 분해인것이다.

緊急處分 大投賣斷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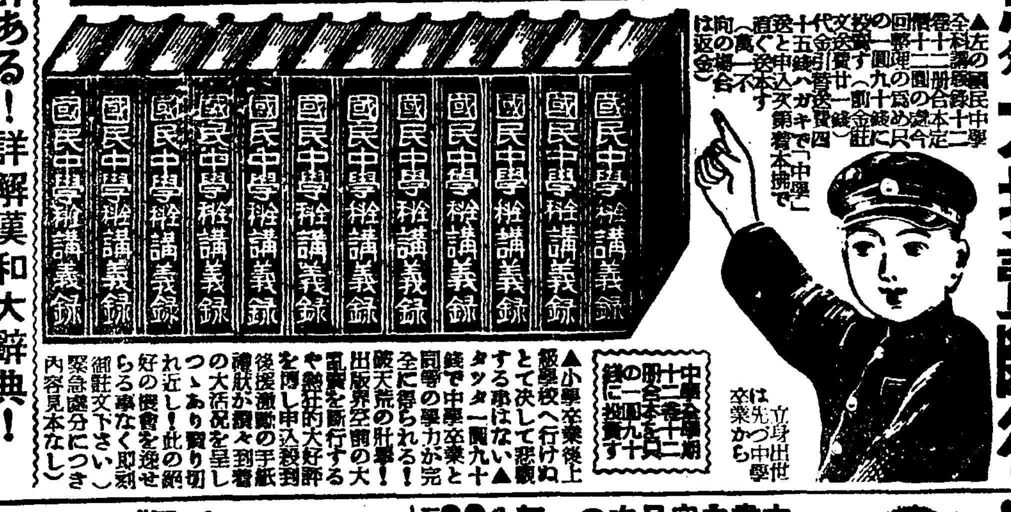
◀辭典拾册合本 タッタの一圓卅錢 (分册四册は各四十錢)▶



緊急處分 大投賣斷行

特別代進呈 最新版懷中日記

國民中學講義錄



▲小學卒業後上級學校へ行けぬとて決して悲觀する事はない▲タッタ一圓九十錢で中學卒業と同等の學力が完全に得られる！破天荒の肚事！出版界空前の大奉仕

●定評ある！詳解漢和大辭典！

緊急處分 大投賣斷行

三圓八十錢をタダの一圓卅錢で大投賣す！

總紙數 千五百頁大册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局區內西町 合資會社 國民書院日報係 振替大阪五壹六貳壹番

▼高級ナイン號萬年筆の大特賣！

手紙上手は立身出世が早い！

手紙の事なら何でも解る大評判の手紙の本

一圓廿錢

景品進呈

本書內容目次の一部分

一種五圓十圓で教へた秘法盡く公開！！

萬國秘法大全

●今まで他に類のない實本！

新式速成 珠算獨習の秘訣

▼そろばん下手では出世が出來ぬ

一圓廿錢

▼正に白熱的！大好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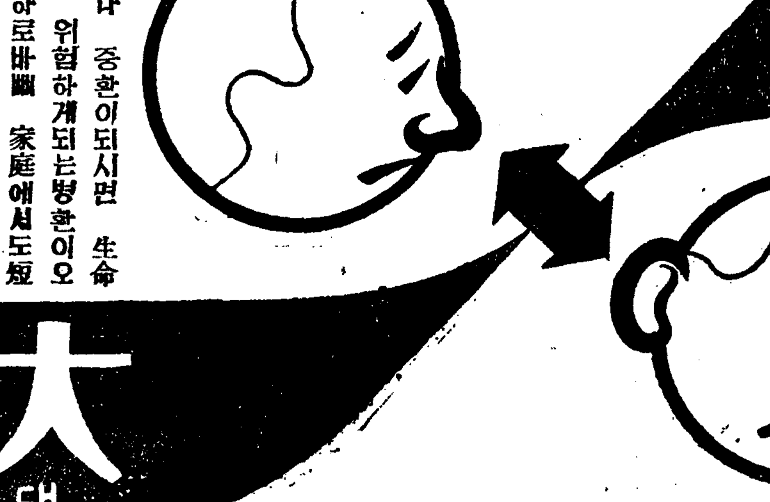
性典

──性教育のテキスト──

▼人生至上の幸福に陶醉せんとする人は讀め！

一圓廿錢

위험한귀병과코병에



머리가 놀아푸고 무거우며 몸전신에 고장이생기고 生存競爭에지게됨

天地는 꽃이만發하엿고 新綠은 希望을가지고 햇빗에 반짝이는명랑한날에 알는분들은 憂鬱의한숨으로 그날을보내며 苦痛에못익연 苦惱의밤을보내시게될것입니다

귀병과 코병은 늘不快한기분을주고 고롬이심할뿐만아니라 頭腦가납버지고 記憶力이업어저서 일에能率도나지안코 드디여 人生의落伍者가 되고마는 병환입니다

또한 人間의게 가장貴重한 듯고 냄새를맛는 기관에고장이생긴것인만큼 그장해는 참으로크니速히곳처주십시요

더구나 중환이되시면 生命까지 위험하게되는병환이오니 하로바삐 家庭에서도短時日안에 손쉽게 根治되는 獨逸의醫藥大家「포리추렐」博士가處方하신「大木耳鼻藥」으로 치료하여주시사 根治의깁븜을어더주시기바람니다

조선은 겨후와 토질관계로 耳鼻病患者가 만흡니다마는 本劑가 한번 조선에나가게된이래 三千里방방곡곡에서 全治의깁븜과 감사의환성이 나날히 놉아가고잇슴니다

귀가 아푸며 울니고 쑤시는분·귀젓이나오는분·귀속이뭇고 가려우며 진물는분·코가늘맥히고 거북하신분·뭇고쑤시며아픈분·코름이나오고악취가나는분·코름이름시둘으는분께특효한약입니다

약가 廿錢 卅錢 五十錢 一圓 全道藥房에서販賣합니다

發賣元 大木合名會社 東京市神田區鍛冶町 振替東京五四〇番

大木耳鼻藥

대목이비약